

LEAGUE TABLE

2020.3Q Korea Capital Market

invest chosun

LEAGUE TABLE

2020.3Q Korea Capital Market

발행인

방정오

편집인

김민열 대표 mykim@chosun.com

광고

김현석 부장 khs1813@chosun.com

콘텐츠 및 광고·사업안내

고아라 goara@chosun.com

이은정

Tel 02-3789-9711, 9710

Fax 02-3789-9719

E-mail investid@chosun.com

취재

현상경 부장 hsk@chosun.com

이도현 차장 dohyun.lee@chosun.com

이재영 차장 leeji@chosun.com

위상호 기자 wish@chosun.com

양선우 기자 thesun@chosun.com

한지웅 기자 hanjw@chosun.com

이상은 기자 selee@chosun.com

정낙영 기자 naknak@chosun.com

이시은 기자 see@chosun.com

하지은 기자 hazzys@chosun.com

이지은 기자 itzy@chosun.com

디자인·그래픽

윤수민 기자 soom92@chosun.com

INDEX

ECM

- IB 기본기 '유상증자'의 시대 왔다...한국證 ECM 1위 08

DCM

- DCM 회복세 보인다지만... '몸사리기'에 차별화 부각 14

M&A

- SK·채권단·금융사로 점철된 M&A 시장...가장 분주했던 CS 20

회사소개

24

가입소개

25



ECM LEAGUE TABLE

IB 기본기 '유상증자'의 시대 왔다...한국證 ECM 1위

2020년 3분기 ECM 주요 거래 리스트

회사명	종목	납입일	규모
대한항공	유상증자	2020-07-17	1조1269억원
카카오게임즈	IPO	2020-09-04	3840억원
CJ CGV	유상증자	2020-07-28	2404억원
제주항공	유상증자	2020-07-22	1505억원
엘브이엠씨	유상증자	2020-07-30	1100억원

ECM 발표 및 집계 기준

ECM 발표 기준

- 1 대표주관·공동주관을 별도로 집계한다. 인수 실적은 주관 실적과 구분해 별도로 발표한다.
- 2 대표·공동주관사에 포함돼 있지 않은 단순 인수단의 인수금액은 대표주관사 실적에 합산한다. 공동주관사는 자신의 인수금액만 주관실적으로 인정한다.
- 3 주선실적과 인수실적, 모집주선실적은 원화를 기준으로 한다. 단, 외화표시 주식연계증권의 경우 증권신고서상 달러/원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IPO 집계 기준

- 거래 금액**
 - 금액에 관계없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거래만을 취합하여 집계한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모 발행 내역은 집계에서 제외한다.
 - 최종 발행가액을 고려한 상장 금액을 기준으로 최종 공모 금액을 산정한다.
- 집계 대상**
 - 국내 주식시장(코넥스 제외)에 최초로 상장하는 종목을 대상으로 한다.
 -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의 경우도 집계한다.
 - 부동산투자회사(REITs)는 제외한다.
 - 단순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상장은 반영하지 않는다. 단, 추후 합병에 성공했을 때 이를 상장으로 인정해 반영한다.
 - 국내 회사라도 해외에 상장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납입기일 기준으로 분기별 거래를 집계한다.
- 거래 지역**
 - 국내
- 거래자**
 - 국내 법인
 - 해외 법인이라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할 때는 실적에 포함한다.

유상증자 집계 기준

- 거래 금액**
 - 금액에 관계없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거래만을 취합하여 집계한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모 발행 내역은 집계에서 제외한다.
 - 최종 발행가액을 고려한 상장 금액을 기준으로 최종 공모 금액을 산정한다.
- 집계 대상**
 - 공모로 발행된 주식을 대상으로 한다.
 - 모집주선 거래는 집계에서 제외한다.
 - 모집주선 거래는 주관사와 인수단이 총액 인수(underwriting)를 하지 않는 거래를 뜻한다.
 - 납입기일 기준으로 분기별 거래를 집계한다.
- 거래 지역**
 - 국내 및 글로벌 시장
- 거래자**
 - 국내 법인이 국내에서 발행한 경우
 - 국내 법인이 해외 주식시장에서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하는 경우 국내에서 신주를 발행하고 이를 예탁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집계에 포함한다.

주식연계증권(ELB) 집계 기준

- 거래 금액**
 - 금액에 관계없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거래만을 취합하여 집계한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모 발행 내역은 집계에서 제외한다.
- 집계 대상**
 - 공모로 발행된 주식연계증권(CB·EB·BW)을 대상으로 한다.
 - 모집주선 거래는 집계에서 제외한다.
 - 모집주선 거래는 주관사와 인수단이 총액 인수(underwriting)를 하지 않는 거래를 뜻한다.
 - 납입기일 기준으로 분기별 거래를 집계한다.
- 거래 지역**
 - 국내
- 거래자**
 - 국내 법인이 국내에서 발행한 경우

IB 기본기 '유상증자'의 시대 왔다...한국 ECM 1위

3분기에만 공모 증자 27건, 2.8兆 규모 진행
 IPO보다 중요성 커져...평소 RM 역량 드러나
 은행 긴 KB·신한 외의 강세도 같은 맥락

ECM 전체 주관 (단위: KRW/백만원)

순위	주관사	금액	건수	점유율	전년 순위
1	한국투자증권	1,382,594	18	23.31	2
2	NH투자증권	1,206,193	13	20.34	1
3	미래에셋대우	749,248	15	12.63	6
4	KB증권	652,748	13	11.00	3
5	유진투자증권	536,990	7	9.05	-
6	키움증권	352,160	4	5.93	-
7	신한금융투자	333,172	7	5.61	5
8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311,784	1	5.25	-
9	삼성증권	212,411	4	3.58	-
10	하나금융투자	191,807	3	3.23	-

ECM 전체 인수 (단위: KRW/백만원)

순위	인수사	금액	건수	점유율	전년 순위
1	한국투자증권	1,357,549	18	23.94	2
2	NH투자증권	1,047,421	13	18.47	1
3	미래에셋대우	711,488	15	12.55	6
4	KB증권	608,466	14	10.73	3
5	유진투자증권	558,556	8	9.85	-
6	신한금융투자	558,556	9	6.25	4
7	키움증권	558,556	6	5.97	-
8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558,556	1	4.40	-
9	하나금융투자	558,556	4	4.22	-
10	삼성증권	558,556	4	3.57	-

IPO 주관 (단위: KRW/백만원)

순위	주관사	금액	건수	점유율	전년 순위
1	한국투자증권	555,953	9	24.25	2
2	NH투자증권	460,871	7	20.10	1
3	미래에셋대우	398,318	11	17.37	4
4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311,784	1	13.60	-
5	삼성증권	212,411	4	9.26	-
6	모간스탠리	167,883	1	7.32	-
7	신한금융투자	118,800	2	5.18	-
8	KB증권	66,039	3	2.88	7

IPO 인수 (단위: KRW/백만원)

순위	인수사	금액	건수	점유율	전년 순위
1	한국투자증권	544,858	9	24.09	2
2	NH투자증권	398,514	7	17.62	1
3	미래에셋대우	389,512	11	17.22	-
4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249,427	1	11.03	-
5	삼성증권	202,811	4	8.96	-
6	모간스탠리	167,883	1	7.42	-
7	신한금융투자	118,800	2	5.25	5
8	하나금융투자	104,121	3	4.60	-
9	KB증권	85,239	4	3.76	-

유상증자 주관 (단위: KRW/백만원)

순위	주관사	금액	건수	점유율	전년 순위
1	한국투자증권	826,640	9	26.39	-
2	KB증권	526,709	7	16.81	1
3	NH투자증권	505,321	5	16.13	3
4	미래에셋대우	350,930	4	11.20	4
5	키움증권	303,980	2	9.70	-
6	신한금융투자	214,372	5	6.84	2
7	유진투자증권	188,590	5	6.02	-
8	하나금융투자	135,652	1	4.33	-
9	한양증권	79,682	3	2.54	-

유상증자 인수 (단위: KRW/백만원)

순위	인수사	금액	건수	점유율	전년 순위
1	한국투자증권	812,690	9	26.78	-
2	NH투자증권	498,906	5	16.44	3
3	KB증권	470,227	7	15.49	2
4	미래에셋대우	321,975	4	10.61	4
4	키움증권	290,525	4	9.57	-
6	신한금융투자	235,724	7	7.76	1
7	유진투자증권	210,156	6	6.92	8
8	하나금융투자	135,652	1	4.47	-
9	한양증권	58,639	4	1.93	-

ELB 주관 (단위: KRW/백만원)

순위	주관사	금액	건수	점유율	전년 순위
1	유진투자증권	300,000	1	50.00	-
2	NH투자증권	240,000	1	40.00	-
3	KB증권	60,000	3	10.00	-

ELB 인수 (단위: KRW/백만원)

순위	인수사	금액	건수	점유율	전년 순위
1	유진투자증권	300,000	1	50.00	-
2	NH투자증권	150,000	1	25.00	-
3	현대차증권	90,000	1	15.00	-
4	KB증권	53,000	3	8.83	-
5	한양증권	7,000	1	1.16	-

스포츠라이트를 받은 건 카카오게임즈 기업공개(IPO)였지만, 투자은행(IB)들의 실력을 가른 건 유상증자 소싱(Sourcing; 거래확보) 능력이었다. 하반기들어 경기 충격이 가시화하며 금융권의 예상대로 유상증자가 폭증했고, 앞으로도 당분간 이런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IPO 빅딜의 경우 주관사 선정 때 공개경쟁입찰을 거친다. 회사의 이름값이나 자본·인력 규모 등이 주요 변수가 된다.

▶ IB 기본기 '유상증자'의 시대 왔다...한국 ECM 1위

유상증자는 조금 다르다. 해당 증권사 영업역(RM)이 얼마나 발행사와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회사채 등 일상적인 시장 활동 과정에서 어떤 인상을 남겼는지가 중요하다. 앞으로 주식자본시장(ECM) 순위 다툼이 '기본기' 경쟁이 될 것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올 들어 모두 105개 기업이 공모 자본조달 거래를 통해 6조5741억원을 조달했다. 발행기업 수는 40%, 총 발행규모는 137%나 증가했다.

조달 종류별로는 유상증자가 42건, 3조7934억원 규모로 가장 컸다. IPO는 43건, 2조6424억원이었다.

특이한 점은 유상증자가 3분기 중 폭증했다는 것이다. 3분기에만 27곳의 기업이 공모를 통해 총 2조7987억원을 조달했다. 올 상반기만 해도 유상증자는 건수와 규모 모두 IPO에 뒤졌지만, 3분기 상장사들의 대규모 자본조달이 잇따르며 규모가 뒤집혔다.

올해 3분기 증시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카카오게임즈는 올해 ECM 리그테이블 순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대한항공·CJ CGV 유상증자를 비롯해 '단독 증자'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순위표를 결정지었다.

한국투자증권이 18건, 1조3963억원의 거래를 주관하며 1위에 올랐다. 한국투자증권은 SK바이오팜·카카오게임즈 등 올해 양대 IPO 딜은 물론, 대한항공·CJ CGV·에이치엘비 등 주요 증자에도 빠짐없이 이름을 올렸다.

상반기까지 압도적 1위였던 NH투자증권은 3분기 누적 기준 KB증권보다도 부족한 유상증자 주관 실적을 기록하며 2위로 내려섰다. 4분기 최대 규모 빅딜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대표주관을 따냈지만, 한국투자증권과 공동대표주관사로 합류해있기 때문에 1위 탈환을 위해서는 분발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기자본 기준 1위 증권사인 미래에셋대우도 대한항공 유상증자 대표주관사단에 포함되며 가까스로 체면치레를 했다. 대한항공 거래를 제외한 14개 주관 거래 건당 평균 발행금액이 370억여원에 그칠 정도로 '빅딜 가뭄'에 시달리는 상황이었다. 그나마 대한항공 거래를 통해 3위에 오를 기반을 갖췄다.

KB증권·신한금융투자 등 은행계 증권사의 깜짝 선전도 특기할만한 부분이다. KB증권은 주관 4위, 신한금융투자는 6위에 이름을 올렸다. 유상증자 부문의 선전 덕분이었다. 은

행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일시적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중견기업을 공략해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가에서는 앞으로 당분간 유상증자가 ECM 실적의 핵심을 담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기 침체의 여파가 항공·소매업에 이어 자동차·전자 등 제조업에까지 미치기 시작하며 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까닭이다. 2~3년 전 IPO를 통해 자본을 확충했던 바이오·헬스케어 업체들이 높아진 주가를 기반으로 2차 자금 조달(Secondary Offering)에 나서는 모습도 자주 눈에 띄고 있다.

IPO의 경우 기업 자체의 투자 매력도 중요하지만 전체 공모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 부침을 겪는다는 점에서 이미 하향세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카카오게임즈를 정점으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간은 빅딜이 발 붙이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얘기도. 빅히트 상장 후 주가 추이가 남은 변수로 꼽힌다.

한 증권사 IB 담당 임원은 "잔액인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본을 공급하면 위기가 끝난 후 크게 좋아질 수

있는, 시장에서 좋아할만한 기업의 증자를 소싱하는 게 핵심"이라며 "IPO는 빅딜 대기 수요가 있지만 공모주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억지로 올릴 필요는 없기 때문에 빅히트 이후 분위기를 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CM LEAGUE TABLE

DCM 회복세 보인다지만... '몸사리기'에 차별화 부각

2020년 3분기 DCM 주요 거래 리스트

채권명	발행목적	발행일	발행액
SK하이닉스 221	채무상환	2020-02-14	1조600억원
LG화학 53	시설자금	2020-02-19	9000억원
에쓰오일 56	채무상환	2020-03-10	6800억원
현대자동차 317	채무상환	2020-05-08	6000억원
기아자동차 283	운영·상환	2020-04-22	6000억원

DCM 발표 및 집계 기준

DCM 발표 기준

- 1 대표주관·공동주관을 별도로 집계한다. 인수실적은 주관실적과 구분해 별도로 집계한다.
- 2 대표·공동주관사에 포함돼 있지 않는 단순 인수단의 인수금액은 대표주관사 실적에 합산한다. 공동주관사는 자신의 인수금액만 주관실적으로 인정한다.
 - 대표주관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사 기본 인수금액 + (단순인수단 인수합산금액 / (대표주관사 수의 총합))]으로 계산한다. 대표주관사가 복수일 경우라도, 각 사별 인수물량에 따라 주관실적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3 주선실적과 인수실적은 원화를 기준으로 한다. 단, 외화표시채권의 경우 증권신고서상 달러/원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 회사채 (SB) 집계 기준

- 거래 금액**
 -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최종 투자설명서를 바탕으로 집계한다.
- 집계 대상**
 - 국내 상장·비상장 비금융 기업이 발행한 일반 회사채를 대상으로 한다.
 -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한 무보증사채도 SB에 포함한다.
 - 납입기일 기준으로 분기별 거래를 집계한다.
- 거래 지역**
 - 국내
- 거래자**
 - 국내 비금융 법인
 - 금융지주회사 및 증권사가 발행한 무보증사채

유동화 증권 (ABS) 집계 기준

- 거래 금액**
 -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최종 투자설명서를 바탕으로 집계한다.
- 집계 대상**
 - 국내 자산유동화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특수목적법인 포함)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대상으로 한다.
 -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은 포함하지 않는다.
 - 납입기일 기준으로 분기별 거래를 집계한다.
- 거래 지역**
 - 국내
- 거래자**
 - 국내 비금융 법인

DCM 회복세 보인다지만... '몸사리기'에 차별화 부각

코로나 여파 장기화에 양극화 심화
우량채 위주 안정적인 수요 회복세
크레딧 위험 있는 기업들 직접조달 ↑
KB證, 12조원 주관 1위...3위에 SK證

3분기 회사채 시장은 우량채 위주로 회복세를 보였다. '코로나 쇼크'가 나타난 1분기, 비수기인 여름을 지나 3분기는 다수의 기업들이 공모채 시장 문을 두드렸다. 기업유동성 지원기구(SPV)와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정부 지원책이 활동하면서 전반적인 회사채 수요예측은 경쟁률이 양호하게 나오고 있다. 다만 민평 금리 수준보다 낮게 입찰하지 않기 때문에 발행 스프레드 자체는 민평 금리보다 다소 높게 형성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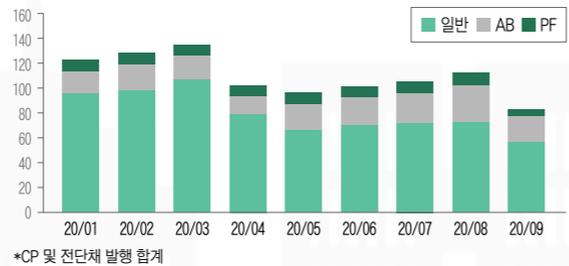
증권사가 주관을 맡은 무보증 공모회사채(일괄신고 제외)는 56조7580억원을 기록했다.

회사채 주관 순위에서 KB증권이 부동의 1위를 이어갔다. KB증권의 누적 주관금액이 12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 10조원보다 늘었다. 7월과 8월에는 1조원에 못 미치는 대표주관 금액을 기록했지만 9월 대표주관 금액은 1조7000억원이 넘었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인 9조1690억원을 주관해 2위를 지켰다. 8월엔 다소 부진했지만 9월에 다시 페이스를 찾은 모습이다. 상반기 4위였던 SK증권은 간발의 차로 한국투자증권을 제치고 3위에 올랐다. 올해 회사채

시장에서 역할이 커진 산업은행은 주관과 인수 두 부문에서 상반기 수준을 유지했다.

CP발행 추이 (단위: 조원)



하반기 들어 회사채 시장의 고질적인 양극화는 그 어느때보다 뚜렷해졌다. 기업의 실적 및 등급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다. 7월 수요예측에서 미매각을 기록한 곳들은 한진(BBB+)과 AJ네트웍스(BBB+), HDC현대산업개발(A+), 현대일렉트릭(A-) 등 모두 AA급 미만 기업들이었다. 8월엔 BBB+ 등급의 키움캐피탈을 제외하곤 BBB급 회사채 발행이 없었다.

신용 리스크가 높아진 가운데 기업어음(CP)금리는 내려가자 일부 기업들은 CP 발행에 나섰다. 재무구조 악화로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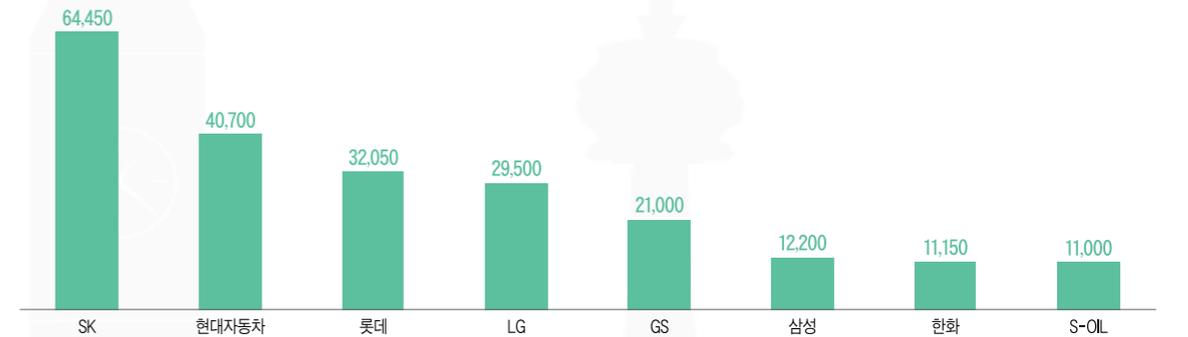
업들이 단기성 자금 조달을 늘리면서 CP발행액은 지난 5월부터 4개월째 증가세를 보였다. 코로나로 인한 업황 악화가 장기할 것으로 예상돼 만기 1년 이상의 장기 CP를 발행하는 기업도 많아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무리없이 흥행할 기업들은 공모채 발행에 나서기로 하고, 금리 밴드 상단이 예상되는 등 자신이 없는 기업들은 차라리 내년 1분기, 혹은 그 후 발행하자는 고민이 있었다"면서 "8월쯤 기업들의 CP 발행이 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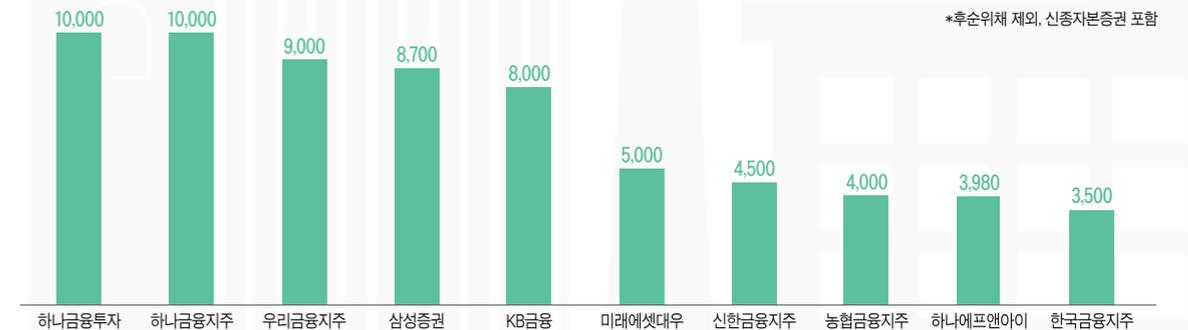
어났는데, 하반기에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는 것들이 많아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량기업들은 공모 회사채 발행을 이어갔다. SK,현대차, 롯데, LG, GS 등 대기업 계열사들이 자금 확보 기초를 유지했다. 3분기 현대오일뱅크(4400억원), 현대제철(7000억원), 롯데케미칼(4000억원), LG이노텍(2700억원), 에쓰오일(6400억원), 롯데지주(3500억원), SK(4000억원), SK이노베이션(5000억원), SK브로드밴드(2200억원) 등이 발행했다.

3분기 누적 기업집단별 채권 발행 현황 (단위: 억원)



3분기 누적 금융사 채권 발행 현황 (단위: 억원)



▶ DCM 회복세 보인다지만... '몸사리기'에 차별화 부각

눈에 띄는 그룹으로는 SK와 롯데가 꼽힌다. 롯데그룹은 7월 롯데케미칼(AA+), 8월엔 롯데물산(AA-)과 롯데주주(AA), 9월엔 롯데쇼핑(AA)이 발행에 나섰다. 10월엔 롯데렌탈(AA-) 발행이 계획돼 있다. 유통 등 그룹 내 주요 계열사들이 크레딧 이슈가 떠오르면서 CP와 사모채 시장에서도 대규모 조달을 이어가고 있다. 호텔롯데(AA)는 8월 3000억원을 포함해 하반기 들어 총 6000억원의 CP를 발행했다. 사모채로도 9127억원을 조달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A)와 코리아세븐(A+) 등도 장기 CP를 발행했다.

SK그룹은 '큰 손' 자리를 지켰다. SK(주)(AA+)는 올해 지금까지 세 번 공모채 발행에 나섰다. 3분기 SK디스커버리(A), SK브로드밴드(AA), SK인천석유화학(AA-) 등도 회사채를 발행했다. 2년 만에 발행한 SK이노베이션(AA+)은 '부정적' 등급전망을 달고 있고, 상반기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는 등 우려가 있었지만 오버부킹을 기록했다.

증권사 크레딧 연구원은 "대기업 위주 AA급 크레딧 시장은 안정적으로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며 "롯데그룹은 밴드 상단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다보니 CP 발행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롯데쇼핑(AA)은 등급보다 낮은 A+에 가까운 스프레드를 갖고 있고, 호텔롯데는 등급 하향 우려가 큰 점이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의 공모채 발행도 이어졌다. 하나금융투자(7000억원), 삼성증권(4100억원), 대신증권(1000억원), NH투자증권(4500억원) 등이 발행했다. 다만 상반기 불거진 단기 유동성 불안과 잇따른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증권사를 향한 투심이 다소 수그러든 분위기다. 7월 1000억원 발행에 나선 대신증권(AA-)은 수요예측에서 '전량 미매각'을 기록했다. 대신증권은 지난해 8월 30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에 1조 1700억원의 주문이 들어온 바 있다.

DCM 전체 주관 (단위: KRW/백만원)

순위	주관사	금액	건수	점유율	전년 순위
1	KB증권	12,884.641	256	22.70	1
2	NH투자증권	9,169.012	194	16.15	2
3	SK증권	6,302.667	71	11.10	5
4	한국투자증권	6,166.752	136	10.86	3
5	미래에셋대우	4,963.732	100	8.75	4
6	신한금융투자	3,802.017	100	6.70	6
7	키움증권	1,979.548	33	3.49	7
8	삼성증권	1,885.417	42	3.32	8
9	한국산업은행	1,085.214	15	1.91	-
10	현대차증권	1,071.973	27	1.89	9

DCM 전체 인수 (단위: KRW/백만원)

순위	인수사	금액	건수	점유율	전년 순위
1	KB증권	9,250.379	264	16.30	1
2	NH투자증권	6,840.200	221	12.05	2
3	SK증권	6,265.000	111	11.04	3
4	한국투자증권	5,348.174	186	9.42	4
5	미래에셋대우	3,873.475	140	6.82	5
6	신한금융투자	3,712.517	151	6.54	6
7	한국산업은행	2,595.000	49	4.57	-
8	현대차증권	2,298.973	80	4.05	10
9	삼성증권	2,055.500	70	3.62	-
10	키움증권	1,812.400	87	3.19	7

업계 상위권의 AA+ 등급 증권사들은 비교적 선방했다. 지난 2월 수요예측에서 5배가 넘는 주문이 들어온 삼성증권은 이번 수요예측에서는 2배 규모의 오버부킹을 기록했다.

일반회사채 주관 (단위: KRW/백만원)

순위	주관사	금액	건수	점유율	전년 순위
1	KB증권	10,075.464	210	23.89	2
2	NH투자증권	8,712.798	188	20.66	1
3	한국투자증권	4,835.964	114	11.47	3
4	SK증권	4,370.333	61	10.36	5
5	미래에셋대우	4,320.214	94	10.25	4
6	신한금융투자	2,788.167	76	6.61	6
7	키움증권	1,893.833	32	4.49	8
8	삼성증권	1,679.917	40	3.98	7
9	현대차증권	600.000	11	1.42	-
10	교보증권	450.000	3	1.07	9

ABS 주관 (단위: KRW/백만원)

순위	주관사	금액	건수	점유율	전년 순위
1	KB증권	2,582.176	39	13.98	2
2	SK증권	1,932.333	10	3.58	1
3	한국투자증권	1,330.788	22	7.89	3
4	신한금융투자	1,013.851	24	8.60	4
5	한국산업은행	972.714	10	3.58	6
6	미래에셋대우	643.518	6	2.15	9
7	유안타증권	600.373	18	6.45	-
8	하이투자증권	599.379	18	6.45	5
9	부국증권	543.748	16	5.73	-
10	메리츠증권	492.581	16	5.73	-

9월의 마지막 우량채인 NH투자증권은 수요가 몰려 3000억원 증액발행했다. 지난해 4월에는 1조 7700억원의 수요가 몰리며 5000억원 증액발행했다.

일반회사채 인수 (단위: KRW/백만원)

순위	인수사	금액	건수	점유율	전년 순위
1	KB증권	6,930.800	217	16.44	2
2	NH투자증권	6,465.200	215	15.33	1
3	한국투자증권	4,356.600	164	10.33	3
4	SK증권	4,235.000	100	10.04	5
5	미래에셋대우	3,192.300	132	7.57	4
6	신한금융투자	2,730.000	126	6.47	6
7	현대차증권	1,827.000	64	4.33	10
8	삼성증권	1,790.500	67	4.25	8
9	키움증권	1,742.400	85	4.13	9
10	한국산업은행	1,538.000	37	3.65	-

ABS 인수 (단위: KRW/백만원)

순위	인수사	금액	건수	점유율	전년 순위
1	KB증권	2,123.079	40	14.83	2
2	SK증권	2,030.000	11	14.18	1
3	한국산업은행	1,057.000	12	7.39	6
4	한국투자증권	991.574	22	6.93	3
5	신한금융투자	982.517	25	6.86	4
6	부국증권	846.348	21	5.91	-
7	미래에셋대우	681.175	8	4.76	9
8	하이투자증권	588.229	19	4.11	5
9	유안타증권	569.659	18	3.98	-
10	메리츠증권	474.210	16	3.31	-

M&A LEAGUE TABLE

SK·채권단·금융사로 점철된 M&A 시장...가장 분주했던 CS

2020년 3분기 M&A 주요 거래 리스트

대상	인수자	계약일(SPA 체결일)	금액
푸르덴셜생명보험	KB금융지주	2020-04-10	2조2650억원
LG화학 편광판사업	중국 산산	2020-06-09	1조3211억원
SK네트웍스 직영주유소	현대오일뱅크-코람코자산신탁	2020-02-28	1조3000억원
삼성디스플레이 쉐저우 LCD 공장	TCL테크놀러지	2020-08-28	1조2805억원
EMC홀딩스	SK건설	2020-09-01	1조500억원

M&A 발표 및 집계 기준

M&A 발표 기준

- ① 재무자문·회계실사·법률자문·인수금융으로 부문을 나누어 부문별 실적을 발표한다.
- ② 해당연도에 주식매매계약(SPA)이 체결된 거래만을 그 해의 거래로 간주해 발표한다.
- ③ 각 자문사별 제출 내용을 토대로 공시·자문사·자문대상 회사 등을 통해 자문 내역과 금액을 확인한다.

M&A 집계 기준

거래 금액

- 최소 500억원 이상 (인수금융 제외)

집계 대상

- 경영권 매각 거래
- 또는 경영권 매각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자문사의 역할이 반영된 주요 거래
- 단순 부동산 거래나 자산매각 등은 제외한다.

집계 기준

- 재무자문은 자문한 거래의 '금액'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회계실사(Due Diligence)와 법률자문은 거래 '건수'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단, 정성적인 판단을 가미해 두 기준을 병행 적용한다.
- 각 자문사의 세부 거래 자문이 다를 경우, 전체 자문에 참여한 자문사는 전체 금액을 반영하고, 각 세부 거래에 참여한 경우는 자문한 거래금액만큼만 집계에 반영한다.
-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일 기준으로 분기별 거래를 집계한다.
- 여러 거래로 이뤄졌지만 실질은 하나로 판단되는 경우는 단일 건으로 집계한다.
- 인수금융은 금액에 상관없이 M&A 거래에 제공된 인수금융 내역 가운데 유상증자, 채권발행 등 직접 금융시장을 통한 조달주관을 제외한 대출(Loan) 참여 실적을 '대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모아 집계한다.
- 합병거래·기타 거래는 거래 성격을 개별 판단, 집계여부와 반영금액을 결정한다.
- 거래금액이 제공되지 않는 거래는 집계에 반영하지 않는다.

거래 지역

- 국내

거래자

- 매각대상(Target), 매각자(Seller) 또는 인수자(Buyer) 한 곳 이상이 국내 법인

SK·채권단·금융사로 점철된 M&A 시장...가장 분주했던 CS

SK·두산·구조조정·금융사 등 자문에 성과 갈려
회계법인도 구조조정 집중...법률자문 김앤장 1위
신규 거래 부재 속 리파이낸싱만...증권사 강세

M&A 재무자문 (단위: KRW/백만원)

순위	주관사	금액	건수	점유율	전년 순위
1	크레디트스위스	6,000,792	10	22.33	2
2	모건스탠리	2,880,558	2	10.72	1
3	삼일PwC	2,779,371	6	10.34	7
4	골드만삭스	2,265,000	1	8.43	4
5	KB증권	2,229,599	4	8.30	-
6	JP모건	2,166,939	3	8.06	9
7	HSBC	1,874,480	2	6.97	13
8	씨티글로벌마켓증권	1,445,205	3	5.38	5
9	BDA파트너스	1,050,000	1	3.91	21
10	도이치	849,219	2	3.16	3

올해 M&A 시장의 핵심 화두는 SK그룹과 금융회사, 채권단발 구조조정이었다. SK그룹 및 채권단과 관계가 돈독하고, 금융회사까지 자문 영역을 넓힌 크레디트스위스(CS)가 가장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그 뒤를 따르는 모건스탠리와 알짜 딜에서 성과를 내는 씨티글로벌마켓증권이 올해 두드러진 성과를 거둘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CS는 3분기 중 SK바이오랜드, 대한항공 기내식 사업, 두산모트롤BG 등 매각, 두산솔루스 인수를 자문했다. 두산그룹과 산업은행을 분주히 오가며 관련 거래를 따냈다. 한진칼

M&A 법률자문 (단위: KRW/백만원)

순위	주관사	금액	건수	점유율	전년 순위
1	김앤장	15,777,052	45	28.48	1
2	광장	12,486,873	29	18.35	4
3	울촌	5,936,126	24	15.19	4
4	태평양	5,789,589	20	12.66	2
5	세종	4,125,628	14	8.86	3
6	화우	833,703	8	5.06	8
7	LAB파트너스	553,400	4	2.53	9
8	기현	684,967	4	2.53	-
9	KL파트너스	843,412	3	1.90	7
10	지평	670,473	3	1.90	6

경영권 분쟁 당시 조원태 회장을 도운 인연이 대한항공 기내식 자문으로 이어졌다. CS는 신한금융지주의 대규모 투자 유치, 네오플렉스 인수를 자문했고, 칼라일의 KB금융 투자도 돕는 등 금융회사 자문으로도 길을 넓혔다. CJ올리브영 상장전투자 유치에선 신한금융투자과 손을 잡았다.

CS는 올해 수입 상당 부분이 작년 시작해 올해 마무리 된 SK그룹 관련 거래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산으로 200억원대 자문 수수료를 받기 어려워졌지만, 이후 파생 거래에서 다시 활약할 가능성이 있다.

M&A 회계실사 (단위: KRW/백만원)

순위	주관사	금액	건수	점유율	전년 순위
1	삼정KPMG	7,296,786	23	0.34	1
2	삼일PwC	8,978,913	22	0.32	2
3	딜로이트안진	8,171,245	17	0.25	3
4	EY한영	3,385,000	6	0.09	4

모건스탠리가 CS 뒤를 이었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중국 쑤저우 공장을 매각하며 오랜 만에 삼성그룹 거래를 맡았다. 작년 스튜디오드래곤 지분 매각에 이어, 올해 JTBC스튜디오 상장전투자까지 잇따라 맡으며 콘텐츠 자문 분야의 강자 이미지를 심었다. 코로나 부담에 아직 본격화하진 않았지만 잡코리아 매각도 하반기 기대할 만하다.

씨티글로벌마켓증권은 올해 ESG그룹과 EMC홀딩스 등 대형 환경업체 매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향후 이어질 유사 M&A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 타겟사업부 매각 등에서도 수익성 위주 자문 기조를 이어갔다. 조단위 거래로 예상되는 SK루브리컨츠 지분 매각 자문을 따내며 SK그룹과 손을 잡았다. 헬스밸런스 매각 완료에 이어 메타넷 매각 자문까지 따내며 앵커에쿼티파트너스와의 돈독한 관계를 드러냈다.

M&A 인수금융 주관 (단위: KRW/백만원)

순위	주관사	금액	건수	점유율	전년 순위
1	미래에셋대우	2,515,600	12	16.06	2
2	한국투자증권	2,203,654	14	14.07	3
3	삼성증권	2,072,500	8	13.23	7
4	NH투자증권	1,794,718	12	11.46	1
5	KB증권	1,623,900	7	10.37	4
6	하나은행	1,623,450	12	10.37	5
7	우리은행	1,587,850	12	10.14	8
8	신한은행	944,000	9	6.03	6
9	KB국민은행	693,100	6	4.43	9
10	신한금융투자	601,300	5	3.84	10

삼일PwC는 두산솔루스 매각·회계 자문을 더해 순위를 유지했고,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은 추가 자문 실적을 더하지 못하며 순위가 밀렸다. KB증권이 코엔텍 인수를 도우며 존재감을 드러냈고, BDA파트너스는 SK건설의 EMC홀딩스 인수 자문으로 순위권에 들어왔다.

회계법인들도 구조조정에서 먹거리를 찾았다. 모트롤 사업 매각에선 딜로이트안진이 매각, 삼일PwC가 인수자 측 실사를 담당했다. 삼정KPMG는 대한항공 기내식 매각 및

▶ SK·채권단·금융사로 점철된 M&A 시장...가장 분주했던 CS

SK건설의 EMC 인수 회계실사를 맡았다. 상대적으로 EY한 영은 잠잠했다.

올해 들어 사모펀드(PEF)들이 회계법인의 주요 고객으로 등장했다. PE 실사 분야에 강한 삼일PwC와 딜로이트안진이 강점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구조조정 딜이 늘어날 경우 이런 경향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PEF의 특성상 손발이 맞는 회계법인과 오랜 시간 같이 일한다. 회계법인들이 얼마나 많은 PE 고객을 확보하느냐가 실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법률자문에선 김앤장법률사무소(김앤장)가 2위 광장과의 격차를 벌렸다. 대한항공 기내식 사업, 두산솔루스 매각 등 굵직한 딜에 빠짐없이 참여하며 1위를 지켰다. 삼성디스플레이 쉐어 LCD 공장 매각에선 삼성 측을 대리해 성과를 냈다. SK바이오랜드와 EMC홀딩스 등 알짜 거래에도 참여했다.

광장은 대한항공 기내식 사업, EMC홀딩스 거래에서 인수자 측에서 김앤장을 상대하며 2위를 지켰다. 율촌은 티몬 투자, 신한금융지주 투자 유치를 자문하며 3위에 올랐다.

태평양은 어피너티의 신한금융 투자, 쥬비스다이어트 인수 자문을 맡아 율촌의 뒤를 이었다.

신규 M&A 거래가 드물다보니 인수금융 주선사들은 힘든 3분기를 보냈다. PEF 포트폴리오 리파이낸싱 거래가 주를 이뤘다. 굵직한 거래에 대부분 참여한 한국투자증권의 약진이 돋보였다. 상위 5개사는 모두 국내 증권사가 차지한 반면, 전통의 강자였던 시중은행들은 순위권에서 다소 멀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3분기 가장 큰 거래는 2조500억원 규모의 ADT캡스 리파이낸싱이다. KB증권이 6150억원의 주선 실적을 올렸고, 한국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가 각각 4100억원을 주선했다. MBK파트너스는 이례적으로 호텔에서 설명회를 열며 두산공작기계 리캡을 추진했다. 한국투자증권과 우리은행이 공동 주선을 맡았다. 이 외에 3분기 중 휴젤(베인캐피탈), 로젠(베어링), 녹수(TPG), ESG(KKR), 코아비스(한앤컴퍼니) 등 리파이낸싱이 이뤄졌다.

신규 거래는 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LG유플러스의 PG사업부 인수(인수금융 2030억원), 스틱인베스트먼트 스페셜

시츄에이션펀드의 동남아 그랩(Grab) 지분 투자(인수금융 1560억원), 베어링의 신한금융 투자(인수금융 3320억원), 미래엔 컨소시엄의 영실업 인수(인수금융 600억원) 등이 있었다.

회사소개

2011년 설립된 조선미디어그룹의 캐피털마켓 미디어입니다.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창구인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점검합니다.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ELB 발행, 인수합병(M&A), 회사채 발행과 구조화상품 활용, 주가 움직임 등을 다채롭게 분석하여 심도 있는 투자정보가 되는 기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경영활동 움직임과 지배구조 개편, 주요 산업의 흐름 변화와 그에 따른 대응책을 분석합니다.

단순히 시장의 흐름과 이슈 전달에 그치지 않고, 이를 유요한 데이터로 모아 축적하고 관리하고 분류해 시장 전반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가입소개



인베스트조선은
유료회원제입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인베스트조선이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01

홈페이지 뉴스 서비스

홈페이지(www.investchosun.com)를 통해 심도 있는 분석 기사를 매일 아침 주요 섹션별로 나눠 제공합니다. 두고 읽을만한 기사는 Editor's Choice를 통해 독자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02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인포그래픽

기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베스트조선'을 구축,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트위터·네이버 라인·카카오톡과의 연계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또 다양한 인포그래픽을 제작하여 주요 기사와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03

조선일보 내 독자섹션 지면 발간

조선일보 내 독자섹션을 매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절차

01

회원가입 신청

www.investchosun.com에서 회원가입신청서 다운로드 후 investid@chosun.com으로 전송 (법인회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Fax 전송)

02

유료서비스 결제

가입신청서를 e-mail로 전송 후 회신 메일의 가입 절차 안내에 따라 '유료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

03

ID/PW 발급

회원 가입 및 입금 확인 후 사이트 관리자가 ID/PW를 이메일로 통보

04

서비스 이용

로그인 화면에서 로그인 후 서비스 이용가능 (생성된 ID는 곧바로 사용가능)

invest chosun

